

'유관순'의 발굴

담당교수 : 배민재

박두진(朴斗鎭), 3월1일의 하늘(1963)

유관순 누나로 하여 처음 나는 / 삼월 하늘에 뜨거운 피무늬가 어려 있
음을 알았다 / ... / 아, 만세, 만세, 만세, 만세

/ ... /

유관순 누나는 저 오르레안, 찐다르꼬의 살아서의 영예 / 죽어서의 신
비도 곁들이지 않은 / 수수하고 다정한 우리들의 누나

/ ... /

아, 유관순 누나, 누나, 누나, 누나 / 언제나 삼월이면 언제나 만세때면
/ 잣아있는 우리피에 용솟음을 일으키는 / 유관순 우리 누나 보고 싶
은 누나 / 그 뜨거운 맘 그 맘속에 주고 싶은 유관순 누나로 하여 우리
는 처음 / 저 아득한 삼월의 고운 하늘 / 푸름 속에 펴려있는 피깃발의
외침을 알았다.

유관순(柳寬順) 열사

- 1902년 12월 16일 천안 출생
-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제, 오빠 유관옥
- 학력사항 - 이화학당
- 고향인 병천 아우내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검거
- 1920년 10월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
-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
- 201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3.1운동의 표상과 기억의 방식 : 최근의 논의

- 해방 직후 정부수립 이전까지 3.1운동의 소환
 - 식민지인 → 민족적 주체, 정치적 주체
 - 각 사회·정치세력의 민족적 정통성 표출
→ 정치적 주도권 선점
 - 국선도-동학-천도교로 이어지는 '민족정신'
 - 개화파-독립협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유관순의 부상

- 유관순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의 문제
 - 1950년대 유관순의 발굴과 소환, 확산
 - 유관순은 어떻게 3.1운동의 표상이 되었는가?
- 유관순을 부각시킨 사람은 누구?
 - 해방 직후 3.1운동의 기념을 둘러싼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
 - 대한민국 헌법 ...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수립'
 - '...처녀 유관순(살아있었으면 45세)의 장엄한 일생을 아는 사람은 아직 드물 것이다.' - 「조선일보」 1947년 11월 27일 조간 '억만인의 感泣. 불멸의 역사 한페이지. 후광 燦然한 순국 소녀 柳寬順'

유관순에 관한 기록 - 「신한민보」 1919.9.2

- <천안시위 운동의 후문 30여명을 일시에 총살>

지난 4월 경에 천안군(충청남도) 병천시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시위운동이 있었다 함은... 김구응, 박종만 양씨의 주모 하에 수천여명의 군중이 맹렬한 시위운동을 행할 세... 김구응씨와 왜경찰이 서로 정론할 때에 왜적이 말이 몰려 제가 제 총으로 자살하겠다 하더니 총날을 김씨의 복부에 하고 발포하여 당장에 죽인 후... 늙은 모친까지 찢러 그만 세상을 하직하였다.

- <한 이화여학생의 체포 소녀의 양친은 원수에게 피살>

서울 이화학당 학생 ○○○여사는 자기의 양친이 오랑캐 왜적에게 피살을 당하여 분기의 맘을 단단히 먹고 각처로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왜적의 사냥개에게 발각되어 중상함을 입고 왜적의 손에 붙들려 감옥에 피수하였더라.

유관순 & 잔다르크

- 羅惠錫, 1933 「꽃의 巴里行, 歐米巡遊記 續」, 『삼천리』 5-4, 82쪽
- 「동아일보」 1936년 6월 3일 조간 '잔·다 크의 記念祭 社會黨의 凱歌 等 裴雲成'
- 「조선일보」 1930년 4월 1일 석간 '救國의 女傑 잔다 크 : 奇蹟的行動 不死의 傳說'
- 「동아일보」 1936년 5월 27일 조간 '巨星의 臨終 語錄 ⑥ 救國의 英雄少女 잔·다 크'
- 「중외일보」 1930년 5월 16일 석간 '승리가 아니면 死일뿐 인도를 위한 잔다르크로 나 여사의 의기 헌양'
- 「조선일보」 1934년 11월 30일 석간 '西班牙의 잔다르크'
- '오냐 나의 적은 힘으로도 능히 집안을 구할 수가 있다. 녀자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는 때이면 나는 마티력사에서 배운 잔다르크 나 되는 것과 가티도 한업는 용기가 용소슴하고 찬란한 회망의 소유자이였다. - 崔承禧, 1936 「나의 舞踊 十年記」, 『삼천리』 8-1, 106~107쪽
- 毛允淑, 1942 「半島指導層婦人の 決戰報國의 大獅子吼 女性도 戰士다」, 『大東亞』 14-3, 115쪽
- 「북미시보」 1944년 5월 15일 '새로 조직된 대한인부인회'

박인덕 & 신봉조 - '미국의 소리' 1978.10.7

- 사회자(이하 사): 유관순양을 세상에 알려지게 한 두분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그 때 동기를 신봉조 당시의 교장 선생님과 박인덕 선생님이 직접 좀 말씀을 자세히 해 주세요.
- 신봉조(이하 신): 거기에(이화의 프라이홀 : 인용자) 박인덕 선생님이 언젠가 오셨는데, 내가 이화학교 졸업생 중에서 굉장히 국가 민족에 공헌 사람 있으면 그런 분을 선생님이 말씀해달라고 했지요...그때가 언제지요?
- 박인덕(이하 박): 그때가 태평양 끝난 후, 해방을 당한 후에, 이화를 갔는데, 가서 신봉조 교장을 만났거든요...내가 서슴지 않고 "아, 우리 이화의 학생으로 있던 유관순이"라고 했지요. 왜 유관순이를 택하느냐고 그래서, 나도 그때 서대문 감옥에 5달 동안 있었거든요...나하고 바로 앉은 건너 방이예요. 대개 오후 5시 되면, 문을 다 짹 열고 호명을 합니다...이렇게 보니까, 유관순이가 앉았거든요...내가 가르쳤으니까 알았지요...나를 보고 나도 저를 보고 눈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대한독립만세를 불러요.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유관순이가 시작한 거예요...지방법원에 가면 미결수들이 심문받으러 가서 부르기 전에 기다리는 방이 있어요, 근데 고걸 나무로 쪼옥 줄행랑모양으로, 그러가지곤 하나 겨우 들어가 앉지 못하고 서서 한 시간이 되거나 두 시간이 되거나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한방에 한 사람씩...그래 거기 있는데, 누가 벽을 '똑똑' 하면서 "누구십니까?" 그러거든요...그래서 "나 박인덕이야"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제가 유관순이에요." 옆 칸에 있었던거요. "어떻게 여기 왔니" 하니까 그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천안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그러니까 봐서 하는 거지요, 사람이 있나 없나 순사가 있나 없나. 오래 기다리니까 할 말이 뭐 있나. 마침 띄엄띄엄 다하는 거예요.
- 신: 천안에서 당하던 일을.

박인덕 & 신봉조 - '미국의 소리' 1978.10.7

- 박: 네...하루는 들으니까 유관순이가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냐니까 만세 날마다 부르다가 저놈들이 때려 죽었대요...목숨을 바쳤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내가 선생으로 한국여성의 애국자로 유관순을 나타내겠다 하는 차에 신교장을 그때 만나서 그랬지. 이화 가서 유관순기념관을 보면, 그때 생각나고. 유관순이 일본놈 손에 맞아 죽었지, 그 피가 살았어. 그 피가 졸업하고 나가는 여학생의 독립운동, 우리나라가 있는 한 유관순이를 알려야 되겠다. 그때 내가 잔타크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잔타크라고 생각했어...내가 이 세상에 가장 기쁘고 통쾌한 것은 유관순이를 알리고 가는 거예요. 항간에서 김마리아씨를 추대하자고도 했지요. 물론 그도 많이 옥고를 당하고 맞고 터지고 했지만 다 하고 나와 정신했죠. 유관순이는 친히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놈 손에 매맞아 죽었어. 하나밖에 없어. 대단해요 정말, 코리아의 잔다크구나 생각했어요. 생명을 내놔으니까요. 어린애가.
- 사: 신박사님은 어떻게 유관순을 알리게 되었나요.
- 신: ...박선생님 그 때 말씀, 그게 시초가 되어, 나는 유관순 말도 못 들어봤어. 이화 학교 교장이면서. 그건 일본 사람들이 일제 시대에 유관순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알릴 이치가 없죠. 늘 유관순씨를 생각할 때는 박인덕 선생을 기억하죠. 박인덕 선생이 열렬하게 하던 그 말씀이 고대로 살아서 전기가 되어 한국 민족은 물론이고 전세계에 알려진 거죠.
- 박: 신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관순이 이화에서 났으니 이화가 얼마나 자랑스럽냐고. 4천년 이래 참 처음 여학교이고 이 사실로 인해서 이화가 영원히 산다고 그랬죠.
- 신: 박인덕 선생님은 유관순을 알린 유일한 사람이예요. 스승과 제자니까 알 수 있었구요. 어떻게 참, 감옥에서 건너편에 있을 수 있는지

유관순과 이화 (梨花)

- 처녀(유관순 : 인용자)의 史實이 작년 10월경 처음으로 일부 식자 간에 알려진 후 유처녀의 모교인 梨花여자중학교를 위시한 유지들이 앞서 유관순 기념사업회를 발기하고... - 「조선일보」 1947년 11월 27일 조간 '억만인의 感泣. 불멸의 역사 한페이지. 후광 燦然한 순국 소녀 柳寬順'
 -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유관순의 집안, 병천 만세운동의 주도과 체포, 옥중에서의 고문, 부모와 동생들의 살해, 옥중 투쟁과 순국 등의 내용
 - 1946년 10월경 처음으로 알려져 이화(梨花)여중을 중심으로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
- 유관순 vs 김마리아(金瑪利亞)

'유관순열사 기념사업회'

- 1947년 8월 발기 : 신봉조, 정인보, 최현배, 설의식, 장지영, 서명학 등 참여
 - 1947년 9월 1일 조병옥과 오천석을 명예회장으로, 이시영, 오세창, 조소앙, 이청천 등을 고문으로 하여 창립
- 1) 기념비, 동상 및 기념관의 건립
 - 2) 도서를 출판하여 유관순의 정신을 국내외의 동포에게 보급할 것.
 - 3)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유관순의 정신을 기조로 한 국민교육을 실시할 것.
 - 4) 유관순 전(傳) 영화화
 - 5) 매봉을 중심으로 녹화(綠化)운동 전개

전영택(田榮澤), 殉國處女 柳寬順傳(1948)

- “시방 우리나라에 제일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은 우리 겨레의 사상이 혼란하여 통일되지 못하고 청년남녀의 정신이 떨어지고 해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우리가 기미년 독립운동 당시에 16세 소녀 유관순이 깨끗하고도 굳세인 애국정신을 가지고 용감스럽게 싸우다가 마침내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순한 사실을 가졌다는 것은 진실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자랑거리” - 서문 中
- “(유관순의 이야기를) 해방 후에 비로소 발견한 우리는 하루바삐 우리 삼천만 동포에 알리고 싶고...관순의 빛나는 생애를 아는데 까지 전하여 건국정신(建國精神)을 힘있게 일으키고저 함” - 머리말 中

영화 "유관순"(1948, 유봉춘)

- 1) 조선인과 일본인의 대결 구도를 뚜렷이 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
- 2) 유관순과 잔다르크의 동일시(#41~46 유관순이 소품을 가서 친구들에게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
- 3) 유관순에게 기독교적 순교의 의미를 부여(#137~138) 정동 예배당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서와 십자가가 관에 넣어지는 유관순의 장례식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

→ '민족주의와 기독교 정신이 분리될 수 없음'

교과서에 나타난 유관순

- 2학년 교과서 '삼일절' (文教部, 1959 국어 2-2 , 75~81쪽)

옥희는 집 앞에 국기게양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여, 학교 기념식에서 유관순 누나의 순국과 이후 지속적인 독립운동 및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유관순 누나와 할아버지들을 본받으라는 교장 선생님 연설을 듣고, 밤에는 아버지와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 유관순 을 본다. 옥희는 영화 이후 뉴스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과 공산군과 싸우는 국군의 모습을 보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귀가한다.

- 3학년 교과서 '유관순'(文教部, 1959 국어 3-2 , 84~88쪽)